The Strateg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2. 2

워시 지명으로 변동성 확대.
미 장기채 금리 확인이 첫 번째

전략/퀀트 | **정다운** | dw.jung@ls-sec.co.kr

케빈 워시 지명에 확대된 변동성

지난 주 예상을 깨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그 이후 시장은 급격히 변동성을 확대했다. 그 동안 Debasement trading으로 강세를 이어온 귀금속 가격이 폭락하고, 한국 증시도 KOSPI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케빈 워시 지명이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매파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크기 때문이었다.

아직 제한적이지만, 케빈 워시 지명자의 정책 스탠스를 살펴보면 QE에 대한 반대와 QT 주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바로 우려를 부각시키는 부분이다. 당사의 기존 전망과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증시 전망의 배경에는 유동성 환경 개선에 대한 전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워시 지명자가 이러한 전제를 훼손시킬 수 있기에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레짐 체인지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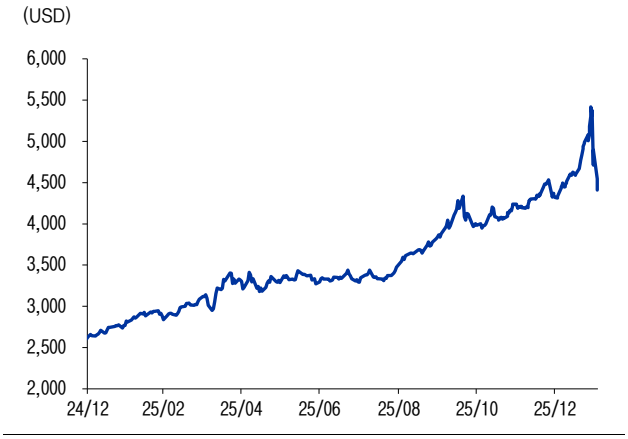
중간 선거를 앞두고 "TACO"를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왜 워시를 지명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노리는 부분은 ①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완화, ② 이를 통한 장기채 금리 하락, ③ 연준의 영향력 축소 및 정부의 영향력 확대 등이다. 치솟아 있는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킬 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워시의 정책 스탠스가 매파적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AI로 인한 생산성 혁명과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주장한 것, 그리고 (QT와 함께 이기는 하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레짐 체인지에 대한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 AI의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은 성장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는 인물로서, 트럼프의 선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기서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과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용인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다. 그에 대한 답은, 정책의 속도감에 있다고 판단한다. 빠르게 금리를 낮춘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 자산 가격의 하락 보다, 금리 하락을 통해 실물 경기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가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선거에서의 득표는 실물 경기(Affordability)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장기채 금리 하락 확인이 첫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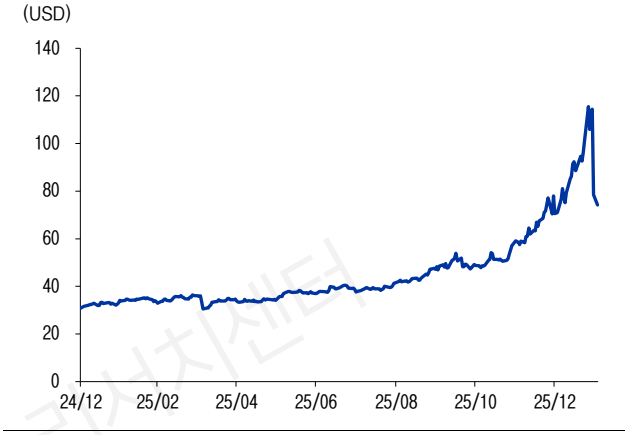
워시가 제시하는 금리 인하와 함께하는 QT는 이례적인 정책 조합이다. 그 만큼 난이도가 높은 정책 조합이다. 앞으로도 정책 수단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제시되고 실행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점으로서 미 장기채 금리 하락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워시 지명 후 지난 금요일은, 미 장기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했다. QT 진행 시, 채권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어떻게 시장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림1 금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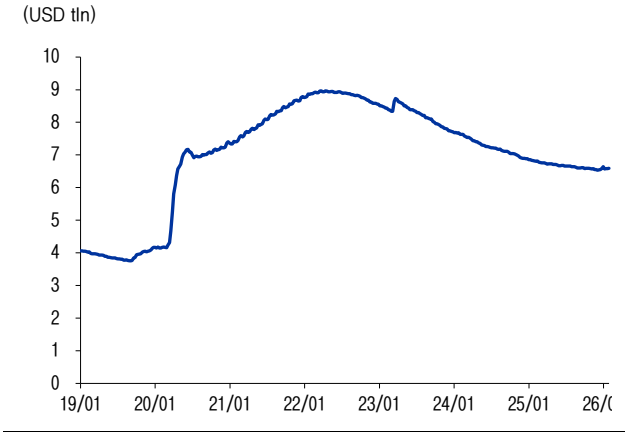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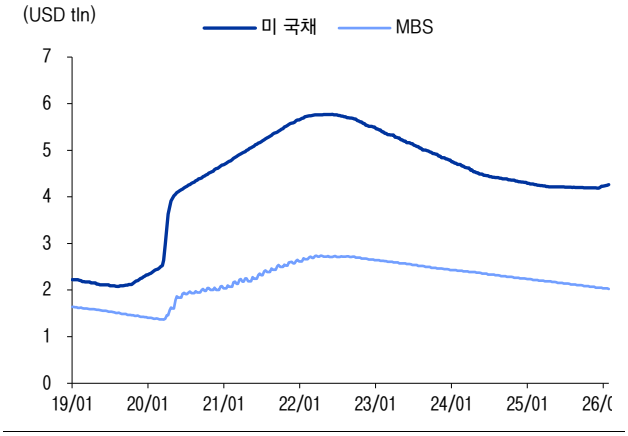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연준 총자산 추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연준의 미 국채 보유 및 MBS 보유 금액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다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